

 국토교통부		<b>보 도 자 료</b>	
		배포일시	2019. 2. 18.(월) / 총 3매 (본문3)
담당 부서	혁신행정 담당관	담 당 자	•과장 김정희, 사무관 김민정, 주무관 남익용 •☎ (044) 201-3216, 3218
보 도 일 시		2019년 2월 19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2. 18.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김현미 장관, 산하 공공기관에 “국민안전은 최우선 가치” 강조 18일 기관장 간담회서 건설교통 안전 중점관리원청 책임강화 주문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2월 18일 산하 공기업, 준정부기관 및 올해 새롭게 지정된 공공기관의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올해 업무계획과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.

\* 인천공항공사, 한국공항공사, 한국토지주택공사, 한국도로공사, 한국철도공사, 한국감정원, 주택도시보증공사,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, 한국철도시설공단, 교통안전공단, 한국시설안전공단,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, 한국국토정보공사, (주)SR,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, 새만금개발공사(신규),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(KIND, 신규)

□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“국토부와 산하기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대원칙은 사람에 대한 가치이며, 사람과 생명의 가치에 비하면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비용증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”면서

○ “원청인 공공기관이 안전에 책임을 지고, 안전관리 수칙을 지키고 설비를 개선해 나간다면 사고위험은 훨씬 줄어들 것이며, 본사 뿐 아니라 자회사·협력사 직원들도 내 자식처럼 생각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해달라” 고 주문했다.

- 또한 올해 1월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새만금개발공사에는 매립사업, 재생 에너지 사업 등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,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(KIND)에는 해외 인프라 사업개발 역량 및 관련 전문성 등을 활용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.

- 더불어, 해외인프라 시장과 개별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우리기업들은 여전히 금융 지원에 목말라하고 있는 상황에서,

- 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3조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·건설·스마트시티 펀드\*는 이러한 갈증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며, 적기조성을 위해서는 재정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.

\* 해외 플랜트·건설·스마트시티 수출을 지원하는 3조원 규모의 모태펀드

- 간담회에 참석한 기관장들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선 기관장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각 기관이 수립한 안전강화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,

-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재정 조기 집행, 차질없는 정규직 전환, 일자리 창출 전인 등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.

- 국토교통부는 산하 공공기관과 함께 올 한 해 동안 건설현장·교통분야의 안전수준을 높이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.

-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, 지난해 12월 개정된 「건설기술진흥법」에 따라 건설공사의 감리제도를 개편해 나갈 예정이며,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.

- 특히, 지난해 말 수립한 “철도안전강화대책(18.12.27)”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,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 간 협력을 강화하고, KTX 노후 전자부품을 전면 정비 교체하는 등 노후 철도시설 개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.
- 또한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 ‘19년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3,200명대로 줄이는데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 
혁신행정담당관실 김민정 사무관(☎ 044-201-321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